

테마칼럼

여성세계

신지브리콜

경제의 눈

문화칼럼

딸들의 교육



김정란 (시인·상지대학교수)

딸들의 교육은 오랫동안 금기였다. 불과 1세기 전에만 해도, '공부하는 여자'는 별종이었다.

'신여성'이라고 불리는, 한반도에서 최초로 근대적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그 금기를 깨 제1세대였다.

'신여성'의 대표주자들은 거의 한결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갑자기 가능해진 자기결정권이 부여해준 의미에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그녀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깊이가 얇은 땅 위에 뿌려진 씨앗들인지 돌아보지 않았다.

공주의 신화

그녀들은 용감하게 돌진했다. 꽃들은 아주 빨리 피었다. 그러나 그 꽃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적당한 물과 바람, 그리고 돌보아주는 정원사의 손길은 없었다.

그러한 일들은 이제 까마득한 과거의 일처럼 여겨진다. 신여성의 실패는 이제든 아득한 옛날이야기이다. 예로부터 시·서에·한국화 그리고 많은 민속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다.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엘리트들이 상층부를 점하고 있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몹서러치진다

들의 교육은 모든 어머니들의 희망이었다. 어머니들은 딸들에게 자신처럼 무능력한 인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수를 쓰든 교육을 받게 하려고 애써왔다.

그리고 딸을 그 누구보다도 우수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공부하는 딸을 위해 주식과 간식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학교와 학원까지 손수 운전해서 모셔다 드리고, 딸-상진이 잠들 때까지 졸린 눈을 비비며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

나는 이 신화와 관련하여 얼마 전에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전교 일등을 놓치지 않는 딸이 있는데, 그녀는 공부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도 아주 잘 치는 재원이었다.

그러나, 그 딸은 피아노 연습할 때 피아노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굽어지므로, 자신이 피아노를 치는 동안, 피아노 아래에 들어가서 자신의 다리를 마사지하라고 어머니-노에게

게 명령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노에는 놀랍게도 딸-공주님이 명령하는대로 하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일류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여성이라는 것이다.

성공이 최종목적?

그런 어머니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도 그 교육은 단지 좋은 남편을 만나는데 쓰이는 상징적 표지에 불과했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딸은 그야말로 실질적인 엘리트가 되게 하고 싶은 것일 것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사회갈등 조장세력, 대통령의 말 귀기울이라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광주 5·18 기념식에서 우리사회의 통합과 화해를 강조하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아직도 반독재투쟁의 시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참여정부들어 일종의 '언터처블' 집단으로 활동하고있는 사회 갈등 조장세력들이 대통령의 이 말을 제발 새겨 듣고 이른바 '투쟁방식'을 바꿔 보라고 호소하고 싶다.

우리는 참여정부들어 일종의 '언터처블' 집단으로 활동하고있는 사회 갈등 조장세력들이 대통령의 이 말을 제발 새겨 듣고 이른바 '투쟁방식'을 바꿔 보라고 호소하고 싶다.

그 자신 노동변호사 출신으로서 운동권 세력을 근간으로 집권한 노대통령이 이같은 호소를 한 것은 그만큼 국제질서를 뒤흔들고 있으며 그전에는 방계장

설치 반대, 새만금 사업 반대등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폭발발발시위를 벌여왔다. 모든 기성질서를 반대하고 투쟁하는 것이 선(善)으로 받아들여졌던 권위주의정권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또 이날 동화혁명당시를 예로 들며 "편협하고 독단적인 사상체계에 빠져 세상물정에 어두웠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변화하는 세계의 새로운 조류를 받아들여야 할 시기에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배척하고 그도 모자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까지 빼앗았다"고 말했다.

그 자신 노동변호사 출신으로서 운동권 세력을 근간으로 집권한 노대통령이 이같은 호소를 한 것은 그만큼 국제질서를 뒤흔들고 있으며 그전에는 방계장

부동산 거품론 정부 당국자가 퍼뜨린데서야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부동산 거품론을 잇따라 퍼뜨리고 있다.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장관에 이어 재정경제부 고위 관료들까지 가세해 "강남 지역 주택가격이 앞으로 20~30% 가량 떨어질 것" "하반기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실거래가 등이 시행되므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면 불이익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내놓았다.

정부 당국자가 경제 위기를 경고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에 대한 고위 관료들의 '릴레이 경고'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무엇보다 부동산 거품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집값도 잡지 못하는 정부가 거품 붕괴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세울 것인지의 심스롭다. 지금부터라도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로 가계로 빠져 나간 규모와 담보 비율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정부 당국은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말로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마지 지역의 대입구도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품론이 사실이라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부동산 거품 붕괴는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우려됐던 '가계 빚 대란'이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된다. 금융시스템이 흔들리면서 외환위기에 비유가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 일본 국민들이 고통스런 15년 세월을 보낸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거품을 부풀리는 것도 경계해야 하나 거품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집값도 잡지 못하는 정부가 거품 붕괴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세울 것인지의 심스롭다. 지금부터라도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로 가계로 빠져 나간 규모와 담보 비율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정부 당국은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말로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현의송

지난 5월 5일 일본의 히구마교수와 진도를 방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진도의 역사문화는 섬 전체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사 중에 있는 한국말 단어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인들 사이에는 진도에 가 보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

지붕없는 역사문화 박물관 - 독립국가 선언

찾아오는 진도다. 문화관광부가 낙조(落照)감상의 최적지로 선정한 '세방낙조'는 환상과 감탄의 극치를 이룬다. 이처럼 진도는 우리의 전통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곳이다.

문화관광부가 낙조(落照)감상의 최적지로 선정한 '세방낙조'는 환상과 감탄의 극치를 이룬다. 이처럼 진도는 우리의 전통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곳이다.

기고



김수공

우리나라 농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며, 최근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과 연계해 데이-마케팅을 도입하고 있다. 1월 1일은 나주에서 배 소비촉진을 위해 제정한 배 데이, 3월 3일은 삼점살 데이, 4월 9일은 토종 화이트(백숙) 데이로 지정됐다.

모 유명 제과회사에서 처음 시작했으며, 최근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과 연계해 데이-마케팅을 도입하고 있다. 1월 1일은 나주에서 배 소비촉진을 위해 제정한 배 데이, 3월 3일은 삼점살 데이, 4월 9일은 토종 화이트(백숙) 데이로 지정됐다.

우리 농업 구하기 - 작은 실천에서부터

인정받아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 현재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진행 중이다. 한국산에 비해 20~50% 값싼 미국산 농축산물이 관세를 물지 않은 채 들어 올 때, 한국시장과 우리 농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고자 많은 토종 데이가 제정돼 있다. 아직은 농산물과 관련한 데이 마케팅이 발을 부치기가 힘들지만, 우리 농업과 농촌을 구한다는 차원에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만화

월드컵에 가린 지방선거



▲김동국·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아파트 뒤편서 담배꽂초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아침 출근길에 아파트 현관을 나서다 머리에 담배꽂이 떨어지는 불쾌한 일을 당했다. 너무 화가 나 곧장 쫓아 올라갔는데 몇 층인지 확인하기 힘들어 포기했다.

못하는 행동이다. 뒤편에 사는 사람이 담배를 핀 뒤 창문 밖으로 재를 털거나 담배꽂초를 버리면 아래층 베란다로 들어오거나 지나가던 이웃이 맞기도 한다.

無等鼓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마태복음 24:2)

의 벽을 떠나지 않는다'는 신앙을 재확인한다. 유대인들은 벽에 머리를 맞대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애도하고 다시 세울 수 있기를 기도했다.

통곡의 벽



벽의 규모는 길이 50m, 높이 20m. 최고 400t이나 되는 돌로 다듬은 이 웅벽은 헤롯이 왕위에 오른 이후 60여 년이나 걸려 지은 것으로, 하루 15단은 아직 매몰된 채로 남아있다.

성벽은 당초 요르단에 귀속됐으나, 1967년 6월 3차 중동전쟁 후 이스라엘로 넘어갔다. 5월 광주의 한이서린 국립 5·18 민주묘지에 최근 '소망의 벽'이 생겼다. 길이 165m 높이 2m의 크기로, 참배객들이 글과 그림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subscription rates.